

사회

# “교도소로 날 보내주”

절도범·기소중지자 “좁고 배고픈 생활 지쳤다. 차라리...”

## 고의로 범행·스스로 경찰서 찾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출소자와 기소중지자가 ‘좁고 배고픈’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란히 교도소행을 택했다.

고물수집상 고모(37)씨는 지난 15일 밤 9시5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N식당과 B오토바이센터에서 방충망 3개와 배기관 1개 등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 물품을 손수레에 실은 고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나지 않고 주변을 배회했다. 우연히 범행 현장을 지나던 경찰은 고씨를 발견하고 불러세웠다.

인적이 드문 상가 주변을 오가며 두리번거리는 고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것이다. 경찰이 자초지종을 캐물자 고씨는 절도 행각을 털어냈다. 고씨는 경찰에서 “(출소 후)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절도’밖에

없었다”며 “다시 교도소에 보내 달라”고 통사정을 했다.

고씨는 지난달 24일 광주교도소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1년6개월 복역한 뒤 만기 출소했다. 이후 고물 수집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나 장기 불황 속에 수입이 갈수록 줄면서 최소 생계비조차 벌지 못하게 되자 고의로 범행을 저지르고 교도소행을 자처했다. 북부경찰은 이날 고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를 받던 40대 남성도 극심한 생활고와 추위에 시달린 나머지 “교도소로 보내 달라”며 스스로 경찰서를 찾았다. 김모(43)씨는 지난 15일 밤 11시께 북구 오치동 북부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을 찾았다. 김씨는 지난 7월 초 폭행 등의 혐의로 벌금 9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지명수배를 받아왔다.

지명수배자 신세로 전락한 김씨는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다.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불안한 생활을 이어가던 김씨는 고민 끝에 북부경찰서를 찾아 자수를 처르겠다”고 진술했다. 북부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벌금 90만원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노역장 유치로 대신하게 되며 벌금 5만원 당 노역장 1일로 환산해 18일간 수감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항일의병 진혼곡** 의병정신선양회(회장 윤우)는 16일 광주시 서구 여성발전센터에서 애국지사 유족, 박경태 광주시장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항일의병 순국 100주년 기념 추모제전’을 개최했다. 광주시립국극단이 항일의병들의 원혼을 달래는 진혼곡을 펼치고 있다. /위적량기자 jw@kwangju.co.kr

# “기본에 충실한 교육 전력”

전호중 조선대 총장 취임 2년

전호중(사진) 조선대학교 총장은 16일 “임기 전반기는 대학 교육의 내실화에 주력한 만큼 후반기 2년은 기본에 충실한 교육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전 총장은 이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 학문에 충실하고 사람에게 충실한 교육을 통해 사회가 요구하고 필요한 사람을 양성해 내겠다”며 “이를 위해 호남지역 최초로 기초교육원을 설립했다”고 말했다.

기초교육원은 신입생의 입학 전 교육, 기초학력평가 실시, 기초 및 교양 과정의 지속적 개발, 인성함양과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전담하는 부서다.

그는 “튼튼한 기초를 토대로 자신의 전문영역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전 총장은 또 “첨단기자재 확보 등 쾌적한 교육환경 구축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열정이 넘치고 연구



역이 탁월한 교수 채용, 교수 강의평가 결과 공개 등 강의의 질도 한단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세계적인 경쟁력을 위해 원어면에 버금가는 영어소통능력을 갖추도록 외국인 교수가 직접 가르치는 ESL(제2언어로서 영어) 프로그램 등 맞춤형 영어교육 과정도 마련했다.

전호중 총장은 “최근 몇 년간 신입생 총원을 100% 기록도 의미가 작지 않지만 우수한 신입생이 많이 늘어난 점은 주목할 만하다”며 “4년 전역장 학급과 외국연수, 학비보조금 지급 등 파격적인 장학제도인 CU리더 신설이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09분 해질 17시 25분 달돋이 07시 32분 달질 17시 26분

맹추위속 움츠러든 시민  
구름이 많이 끼었으며 오전 한때 서해안 지방에 눈이 조금 내리겠다.

광주	흐림	2/8℃
목포	비/눈	2/7℃
여수	흐린뒤 맑음	4/9℃
완도	흐림	2/8℃
구례	흐림	0/8℃
애남	흐림	2/8℃
장흥	흐림	2/8℃
고흥	흐린뒤 맑음	3/9℃
순천	흐린뒤 맑음	2/9℃
영광	차차흐려져 눈	1/7℃
진도	비/눈	2/8℃
전주	흐린뒤 맑음	-1/6℃
남원	구름맑음	-1/6℃
목산	비/눈	6/7℃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저위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동 0.5~1.5m 1.0~2.0m 낮음 관심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동 1.0~2.0m 낮음 관심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동 0.5~1.5m 목포 01:49 07:07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동 1.0~2.0m 여수 09:17 02:36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동 1.5~2.5m 21:09 15:20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8(수)	19(목)	20(금)	21(토)	22(일)	23(월)
날씨	☁	☀	☀	☀	☀	☀
최저/최고	1/9	2/12	3/13	3/14	4/14	5/16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젊음이 있는 대학!!  
**광신대학교**  
신원로 학부 605-1114 / 대학로 605-1115

**광주공원 정비 아이디어 공모** 시, 상금 1,900만원  
**새마을호·무궁화호 발암물질 석면 검출** 철도노조 주장

광주시가 광주의 제1호 공원의 광주공원을 새로운 개념의 시민휴식공간으로 정비하기 위해 일반시민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모두 1천900만원의 상금을 걸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모는 일반 시민부문과 전문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일반 시민부문은 글이나 그림 등으로 자유롭게 표현한 아이디어 ▲전문부문은 공원 조성의 기본방향, 공원 기본구상안, 공간 디자인 등을 도면으로 작성한 아이디어를 접수해야 한다.

시는 16일 홈페이지(www.gwangju.go.kr)에 공모 내용을 공고, 오는 12월7일부터 14일까지 아이디어를 접수할 예정이다. 당선작은 12월17일 공개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객차의 히터(난방장치) 부품에서 발암 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김기태)과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상임대표 백도명)는 16일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마을·무궁화호 객차의 히터에 쓰이는 단열재 시료 28개를 분석한 결과 12개에서 석면의 일종인 백석면(chrysotile)이 5~87% 농도로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객차 히터는 승객 발 옆에 설치된 스테인리스 재질 상자로, 석면은 이 장치 안 방열기를 둘러싸고 화재를 막는 불연(不燃) 단열재로 쓰였다고 노조 측은 전했다. 석면이 검출된 객차는 모두 1986~1987년 제조된 낡은 차량으로, 무궁화호 10량과 새마을호 1량이다.

/연합뉴스

# “낙엽, 치울까 말까”

“하수구 막히고 지저분” ... “가을 정취 느끼게 그대로”

## 광주 각 구청 엇갈린 주민 민원 고민

최근 도심 주택가 주요 도로 낙엽 처리 문제를 놓고 주민들이 상반된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자 광주시 각 구청이 고민에 빠졌다. 낙엽을 치우자니 “가을의 정취를 해친다”는 민원에 시달리고, 그대로 놓아두자니 “지저분하다”며 아우성이기 때문이다.

9일 각 구청에 따르면 최근 주민들이 “주택가 주변 앞길에 쌓인 낙엽을 치워 달라”는 민원을 각 구청 홈페이지에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낙엽을 제때 수거하지 않아 인근 도로가 지저분해지고 하수구가 막혀 침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낙엽에 미끄러지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광주지역 주택가와 도로 주변에는 현재 은행나무(3만9천780그루)·노티(2만4천463그루)·이팝(1만207그루)·메타세쿼이아(1만555그루) 등 11만5천30그루가 심어져 있다. 주민들은 이 같은 피해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지만, 구청 측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한편 북구는 지난 2003년부터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전담도교 육청까지 1km 구간을 ‘거닐고 싶은 거리’로 지정, 일정기간(11월1일~12월10일) 동안 낙엽의 일부를 남겨둬 겨울 분위기를 살리고 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낙엽을 수거하고 있다. 수거된 낙엽의 70%는 매립·소각되고 나머지 30%는 농가의 퇴비로 공급되고 있다.

광주시 북구 관계자는 “낙엽 청소 등 민원이 제기되면 곧바로 나가 치우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고민스럽다”면서 “이때때 낙엽 치우는 일로 미화원들의 업무가 배가되는데, 민원까지 겹쳐 힘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2003년부터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전담도교 육청까지 1km 구간을 ‘거닐고 싶은 거리’로 지정, 일정기간(11월1일~12월10일) 동안 낙엽의 일부를 남겨둬 겨울 분위기를 살리고 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 남구, 자전거 무료 수리센터 운영

“수리가 필요한 자전거는 남구청으로 가져 오세요.”

남구 남구는 자전거 타기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청사 내에 자전거 무료 수리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자전거 수리센터는 희망근로 사업의 하나로, 관내에 방치되거나 기증받은 자전거를 수거하여 수리한 뒤 필요로 하는 단체와 사

람들에게 기증하게 된다. 수리센터는 또 간단한 수리가 필요한 주민들의 자전거도 무료로 점검해 준다.

남구는 이를 위해 18일 오전 구청 상황실에서 남구자전거협회(회장 안계옥)와 ‘자전거 수리 기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오는 26일 청사에서 수리센터를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김현호기자 kh@kwangju.co.kr

**세기보청기! 세계브랜드의 자부심을 세우다!**

세계의 명품 브랜드가 모여 만든 세기보청기. 세기보청기는 세계의 명품 브랜드가 모여 만든 세기보청기. 세기보청기는 세계의 명품 브랜드가 모여 만든 세기보청기.

www.segiboclear.com

1588-8489 / 02-222-0701

1588-8489